



탄성·열기가득했던 라그나로크 축제

그라비티는 지난달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제4회 라그나로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작하기 2시간 전부터 수백여명의 사용자들이 장사진을 이루며 줄을 서는 등 5만여명의 사용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글 신승철 기자

“이것이 새로 업데이트될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와우!” 커다란 전광판에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뜨자 이곳저곳에서 관람객들의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어느새 4회째를 맞은 라그나로크 페스티벌, 일명 라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특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라페 참여자들은 게임속의 캐릭터들로 분장한 코스튬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 게임의 소모임과 같은 라페 현장에서 때아닌 모임의 맛도 있었다. 행사를 만끽하는 관람객들의 표정을 보니 ‘그라비티가 하나의 성공한 게임사업을 통해 제2, 제3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홍철·웃찾사 출연 등 다양한 이벤트 펼쳐

라페는 그라비티의 온라인게임인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중심이 되는 게임축제로 지난 2002년 일본에서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처음 시작된 이후 국내는 물론 중국·대만·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김정률 그라비티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지존 길드대전, 아로샵 패션쇼, 코스튬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김정률 회장은 “라페는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돼 이제 전세계 37개국의 라그나로크 사용자들을 이끄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만날 수 있었던 이번 라페는 국내 게



임산업의 발전 경로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동시에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사용자들의 만남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또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사용자들을 만나보고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편 이번 라페에서는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기 VJ 노홍철이 출연, 특유의 입담으로 라그나로크 마니아들과의 깜짝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는 등 관람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보이즈 포맨·로보캅·화상고·웨이래 등 4개의 ‘웃찾사’ 팀이 공연을 통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화상고 팀은 독특한 라그나로크 권법을 보여줬고, 보이즈 포맨 팀은 멋진 라그나로크 코스튬을 입은 여성 관람객과 함께 공연을 펼쳤다.

이밖에도 동인 프리마켓·코스프레 존·모바일존·초보자수련장 등 다양한 이벤트 코너들이 마련됐으며, 특히 동인 프리마켓에는 일본 라그나로크 동호회장인 마에카와씨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